

## 서울시내 초등학생들의 음주실태

문 정 순 · 양 수 · 유 양 숙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목 차

I. 서론	V. 논의
II. 문헌고찰	VI.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영문초록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의 물질남용은 전 세계를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물질 중에서 사용 경험과 빈도가 가장 높은 술은 기분을 변화시키는 물질 중 인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물질이다. 술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윤희유의 역할을 한다던가, 제례나 종교적 행사에서 사용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소량의 음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즐거운 기분을 증가시키고, 긴장과 불안을 감소, 식욕 증진 등의 긍정적 국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알코올은 중추신경억제제로 뇌의 기능을 둔화시키며, 수면이나 마취효과를 내는 중독성이 강한 습관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알코올을 경험할수록 여러 가지 질병발생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위험한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무단가출, 폭력행위, 절도, 기물 파손 등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또한 어린 나이에

알코올을 경험할수록 나이가 들어 과음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결국에는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기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인생의 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김경빈, 1991), 어린 시절에 물질에 중독 됨으로 삶에 대한 목표를 상실하여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된다. 즉 음주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독성화가 쉽게 일어나며 다른 약물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 형성된 음주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James, et al., 1996).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미성년자의 음주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1997년부터 알코올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18세로 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서 첫 음주시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입학전이 67%로 가장 많고 특히 15.4%에 이르는 학생이 12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음주의 저 연령화 경향을 보여준다(한국대학생 알코올문제 예방협회, 1998). 이기

찬 등(1997)의 연구결과 음주를 시작한 때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고 답한 대상자가 32.6%였으며, 문화체육부(1996)의 조사에서도 46.6%의 초등학생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는 이미 초등학생들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음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이나 중독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내용도 모든 약물 남용 속에 포함시켜 일부 조사한 것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실태에 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것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청소년의 문제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문제 음주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주 경험률을 파악한다.
2.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률을 파악한다.
3.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률을 파악한다.
4.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주 경험에 따른 장래 음주 의도를 파악한다.

## II. 문헌 고찰

청소년의 음주실태에 관한 외국의 연구를 보면, Black(1994)이 11-12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보면 대상자의 98.5%가 이미 중학교를 갈 때쯤이면 음주를 경험하였으며 술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HEA(1997)는 처음 알코올을 접한 나이가 남자는 8.6세, 여자는 9.2세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McMiller와 Plant(1996)는 15세와 16세까지의 아동 중 77.9%가 중독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고, 1994년 Office of Censuses and Survey의 연구결과 1990년 미성년의 음주가 13%이던 것이

1994년 17%가 정기적으로 음주를 한다고 하여 미성년자의 음주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외국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가 다양해 초등학생들의 반수정도가 알코올음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은 이러한 음료에 함유된 알코올에 대해 별다른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Haydock, 1998). 따라서 이미 아동기에 음주를 경험하는 경우 중학교에서의 음주예방교육은 늦는다는 생각이 인정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수준에서 알코올 교육이 소개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초등학생들의 알코올 사용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Haydock, 1998).

이러한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외국에서는 금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비판적인 의식을 가동시키는 Freire의 Problem-posing방법(1988), 7-12학년을 중심으로 건강신념모델 및 자기확신 이론을 응용한 인지적인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Project alert), 가족을 포함시킨 Stars(Start Taking Alcohol Risks Seriously)for families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최은진, 1999). 특히 인지적 위험요인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의 교육요소는 음주권유를 거절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금주의 인지된 효과(이익), 기술개발 훈련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링,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칭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Stars프로그램은 음주의 시작동기를 교육목표로 하여 음주형태와 결과를 줄이고 음주시작을 늦추며 술 및 기타 약물사용을 줄이고 음주관련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들의 음주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김소야자 등(1994)에 의하면 중학생의 38.5%에서 음주경험이 있고 고등학생 중에는 72.8%, 또 여학생의 35%가 음주경험이 있어 여학생의 음주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3년에 한국청소년학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중학생의 음주경험은 11.8%이었고, 1998년에 윤혜미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중학생의 43.4%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대학생 알코올문제 예방협회(1998)에서 중·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중학생의 57.3%가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초 음주시기는 15.4%에 이르는 학생이 12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기찬 등(1997)의 연구결과 음주를 시작한 때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고 답한 청소년이 32.6%로 나타났으며, 문화체육부(1996)의 조사에서도 46.6%의 초등학교 학생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20.7%의 학생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간경애와 김영혜, 2000), 음주는 이미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정순 등(2000)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84.6%의 교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주예방교육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음주학생이 많고 시작연령이 어려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7.1%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코올 사용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올바른 태도와 생활습관이 정립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는 아직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코올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중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학생의 음주에 대한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때의 음주경험을 추적 조사한 것으로, 음주에 관한 내용만을 조사한 것은 거의 없으며 모두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알코올을 포함시켜 조사하였거나 흡연실태와 함께 조사된 자료(간경애와 김영혜, 2000; 이기찬 등, 1997; 문화체육부, 1996; 체육청소년부, 1991)이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국내에는 외국처럼 문제 음주 예방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고, 프로그램 개발 이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주 실태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서울시내의 5개 초등학교의 4,5,6학년 학생 6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자료수집 절차

1999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시의 5개교의 학교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다. 허락을 받은 초등학교의 4, 5, 6학년 대상으로 학급의 담임교사나 양호교사가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으며, 700부를 배포하여 회수한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630명의 자료(90.0%)를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연구원들이 문헌을 참고로 질문지를 개발한 후 초등학교 교사 8인과 교육학 교수, 예방의학교수 각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한 다음 교사 5인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0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한 것으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환경 및 음주 실태에 관한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자료분석

SAS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음주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학생들의 학년별 분포를 보면, 4학년이 30.5%(192명), 5학년이 37.9%(239명)이었으며, 6학년이 31.6%(199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2.9%(332명), 여학생이 47.1%(296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무교로 21.7%, 불교가 20.2%이었다. 학교성적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좋은 편이라는 학생들이 24.2%, 나쁜 편이라는 학생은 10.3%였다. 교우관계는 친구가 많다고 응답한 학생들

이 56.5%,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40.3%인 반면, 친구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2%였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다가 63.3%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가 33.3%, 힘들다가 3.3%였다(표 1).

〈표 1〉 대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변 수	구 분	실수(명)	백분율(%)
학 년	4	192	30.5
	5	239	37.9
	6	199	31.6
	계	630	100.0
성 별	남	332	52.9
	여	296	47.1
	계	628	100.0
종 교	천주교	92	14.8
	기독교	256	41.1
	불교	126	20.2
	기타	14	2.2
	없음	135	21.7
친 구	계	623	100.0
	많다	355	56.5
	보통	253	40.3
	거의 없다	20	3.2
학교생활	계	628	100.0
	재미있다	397	63.3
	그저 그렇다	209	33.3
	힘들다	21	3.3
학교성적	계	627	100.0
	좋은 편	149	24.2
	보통	402	65.5
	나쁜 편	63	10.3
계	614	100.0	

\*무응답 제외

## 2. 대상학생들의 환경

학생들의 거주지역은 아파트가 68.4%, 단독주택지역이 23.2%, 상가, 공장 및 기타 지역이 8.4%였다.

부모의 상황은 양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97.1%, 편부모인 경우는 2.1%, 부모 모두 없는 경우가 0.8%이었다. 부모 중 아버지의 99.3%, 어머니의 40.0%가 직업이 있었다.

부모의 관심정도에서도 많다가 7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라는 학생이 18.6%, 적다는 2.3%였다. 가정 생활은 '화목하다'가 78.8%, 그저 그렇다가 19.9%였다. 부모가 음주자인 학생은 82.0%였다(표 2).

〈표 2〉 대상 학생의 환경

변 수	구 분	실수(명)	백분율(%)
거주지	아파트 지역	425	68.4
	단독주택지역	144	23.2
	상가, 공장 및 기타	52	8.4
	계	1,147	100.0
부모	무	5	0.8
	편부모	13	2.1
	양부모	612	97.1
계	630	100.0	
아버지의 직업	유	600	99.3
	무	4	0.7
	계	604	100.0
어머니 직업	유	244	40.0
	무	366	60.0
	계	610	100.0
부모의 관심	계	619	100.0
	많음	458	74.0
	보통	115	18.6
	적음	14	2.3
	잘 모름	32	5.2
가정생활	계	628	100.0
	화목하다	495	78.8
	그저 그렇다	125	19.9
	불안하다	8	1.3
부모의 음주	계	628	100.0
	예	511	82.0
	아니오	112	18.0
계	623	100.0	

\* 무응답 제외

## 3. 초등학생들의 음주 실태

### 1) 초등학생들의 음주 실태

초등학생들의 음주경험은 무경험자가 44.6%였고, 경험자가 55.4%이었는데, 경험자 중 즐겨 마시는 학생이 1.9%였다(표 3).

〈표 3〉 대상 학생들의 음주 실태

구 분	실수(명)	백분율(%)
마신적 없다	278	44.6
마셔 봤다	333	53.5
현재 즐긴다	12	1.9
계	623	100.0

\*무응답 제외

2) 음주 경험 학생들의 첫 음주 관련 상황

음주 경험자들이 처음 음주를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이 2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3학년으로 18.4%, 5학년이 16.6%, 1학년, 2학년, 6학년이 각각 16.1%, 13.0%, 11.2%의 순이었다.

처음 음주한 장소는 가족 모임이나 행사가 가장 많아서 63.5%였으며, 다음이 명절이나 제사 때가 34.6%였다.

음주시 기분은 힘들었다가 54.5%, 기분이 좋았다가 16.8%, 아무 느낌 없었다가 10.1%, 맛없다가 8.6%, 불안했다가 6.7%였다.

처음 마신 술은 맥주가 4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주로 20.0%, 막걸리가 11.5%, 과일주가 11.2%, 양주가 8.8%, 기타가 7.3%였다.

음주동기는 호기심에서가 41.3%로 가장 많았고, 어른들의 권유가 37.5%, 술인지 모르고 실수로 마신 경우가 15.1%, 다음이 기타 친구나 선배의 권유가 6.1%였다.

음주시 동반자는 부모가 55.3%, 혼자 20.7%, 친척 어른이 20.3%, 친구와 선배는 3.8%에 불과했다 <표 4>.

3)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경험

학년별 음주경험의 차이를 보면, 4학년이 57.8%, 5학년이 56.7% 6학년이 51.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양상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은 남학생이 65.1%로서 여학생의 44.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종교에 따른 음주경험은 불교가 6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무교로 54.8%, 천주교가 54.3%, 기독교가 51.8%의 순위였으나 종교에 따른 음주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우관계에 따른 음주율은 친구가 적다는 학생이 75.0%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학생이 55.0%, 많다는 학생의 음주경험이 54.5%로서 교우 관계에 따른 음주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음주 경험이 66.7%,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58.7%, '재미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2.9%로서 학교 생활에 따라 음주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음주 경험 학생들의 첫 음주 관련 상황

변 수	구 분	실수(명)	백분율(%)
처음 음주한 시기	1학년	36	16.1
	2학년	29	13.0
	3학년	41	18.4
	4학년	55	24.7
	5학년	37	16.6
	6학년	25	11.2
	계	223	100.0
처음 음주 장소	제사, 명절	91	34.6
	가족 모임, 행사	167	63.5
	기타	5	1.9
	계	263	100.0
음주시 기분	좋았다	45	16.8
	힘들었다	146	54.5
	불안했다	18	6.7
	맛없다	23	8.6
	아무느낌없었다	27	10.1
	기타	9	3.3
	계	268	100.0
처음 마신 술	소주	52	20.0
	맥주	126	48.5
	막걸리	30	11.5
	양주	13	8.8
	과일주	29	11.2
	기타	19	7.3
	계	260	100.0
음주동기	어른의 권유	99	37.5
	호기심	109	41.3
	실수로	40	15.1
	기타	16	6.1
	계	264	100.0
음주시 동반자	부모	147	55.3
	친구, 선배	10	3.8
	친척 어른	54	20.3
	혼자서	55	20.7
	계	266	100.0

\*무응답 제외

음주경험은 또한 학교 성적이 보통이 57.2%, 나쁜 편이 57.1%, 좋은 편이 49.0%로 음주 경험은 학교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4) 환경에 따른 음주 경험

학생들의 거주지역에 따른 음주경험의 차이를 보면, 상가 공장 및 기타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음주경험율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단독 주택지역으로 61.0%, 아파트 지역이 54.1%로서 학생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음주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음주경험

변 수	구 분	음주경험		x <sup>2</sup>	p
		무 실수(%)	유 실수(%)		
학 년	4	79(42.3)	108(57.8)	1.797	0.407
	5	103(43.3)	135(56.7)		
	6	96(48.5)	102(51.5)		
	계	278(44.6)	345(55.4)		
성 별	남	115(34.9)	215(65.1)	27.132	0.001
	여	162(55.7)	129(44.3)		
	계	277(44.6)	344(55.4)		
종 교	천주교	42(45.7)	50(54.3)	7.650	0.105
	기독교	121(48.2)	130(51.8)		
	불 교	50(40.0)	75(60.0)		
	기 타	2(14.3)	12(85.7)		
	없 음	61(45.2)	74(54.8)		
	계	276(44.6)	341(55.4)		
친 구	많 다	160(45.5)	192(54.5)	3.228	0.199
	보 통	112(45.0)	137(55.0)		
	거의 없다	5(25.0)	15(75.0)		
	계	277(44.6)	344(55.4)		
학교생활	재미있다	184(47.1)	207(52.9)	2.924	0.232
	그저 그렇다	86(41.3)	122(58.7)		
	힘들다	7(33.3)	14(66.7)		
	계	277(44.6)	343(55.4)		
학교성적	좋은편	76(51.0)	73(49.0)	3.077	0.215
	보 통	172(42.8)	230(57.2)		
	나쁜편	27(42.9)	36(57.1)		
	계	275(44.6)	339(55.4)		

\* 무응답 제외

부모의 존재여부에 따른 음주 경험을 보면 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가 80.0%, 편부모인 학생이 61.5%, 양부모인 학생의 음주 경험이 55.0%로서 음주 경험은 부모의 존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관심이 적다는 학생의 음주 경험이 71.4%, 보통이라는 학생이 54.9%, 많다는 학생은 54.2%, 잘 모른다는 학생의 음주 경험이 50.0%로서 부모의 관심 정도에 따라 음주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가정생활이 불안하다는 학생들의 음주 경험율이 62.5%, 그저 그렇다는 학생이 61.8%,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53.7%로서 가정 생활에 따라 음주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가 음주자인 학생의 음주 경험이 58.9%로서 부모중 음주자가 없는 학생의 39.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01)〈표 6〉.

〈표 6〉 환경에 따른 음주 경험

변 수	구 분	음주경험		x <sup>2</sup>	p
		무 실수(%)	유 실수(%)		
거주지	아파트지역	193(45.8)	228(54.1)	2.080	0.354
	단독주택지역	55(39.0)	86(61.0)		
	상가공장 및 기타	24(33.3)	28(66.7)		
	계	272(44.6)	342(55.4)		

〈표 6〉 환경에 따른 음주 경험(계속)

변 수	구 분	음주경험		x <sup>2</sup>	p
		무 실수(%)	유 실수(%)		
부 모	무	272(45.0)	333(55.0)	1.454	0.483
	편부모	5(38.5)	8(61.5)		
	양부모	1(20.0)	4(80.0)		
	계	278(44.6)	345(55.4)		
부모의 관심	많다	203(44.8)	250(55.2)	1.846	0.605
	보통	51(45.1)	62(54.9)		
	적음	4(28.6)	10(71.4)		
	잘 모름	16(50.0)	16(50.0)		
	계	274(44.6)	338(55.4)		
가정생활	화목하다	227(46.3)	263(53.7)	2.786	0.248
	그저 그렇다	47(38.2)	76(61.8)		
	불안하다	3(37.5)	5(62.5)		
	계	277(44.6)	344(55.4)		
부모의 음주	예	210(41.1)	301(58.9)	14.308	0.001
	아니오	68(60.7)	44(39.3)		
	계	112(44.6)	345(55.4)		

\* 무응답 제외

5) 음주에 대한 장래 계획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장래의 계획은 비경험자가 경험자에 비해 앞으로 마시겠다는 학생이 유의하게 적었다(P=0.023). 즉 안 마셔본 학생 중에서는 계속 안 마시겠다는 학생들이 86.6%, 마시겠다는 학생들이 13.4%였으며, 반면에 음주경험이 있거나 마시는 학생들 중에서는 안 마시겠다는 학생들이 79.3%, 마시겠다는 학생은 20.7%였다(표 7).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주경험은 경험자가 55.4%이었는데, 경험자 중 즐겨 마시는 학생이 1.9%였다. 이 결과는 11-12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영국의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98.5%가 음주를 경험했다는 보

고보다는 낮았으나(Black, 1994; HEA, 1997), 이 기관(1997)의 연구결과 음주를 시작한 때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고 답한 대상자가 32.6%였으며, 문화체육부(1996)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6.6%, 부산지역의 조사에서 20.7% (간경애와 김영혜, 2000)를 상회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이미 아동기에 음주를 경험하는 경우 초등학교 수준에서 알코올 교육이 소개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Haydock, 1998).

음주 경험자들이 처음 음주를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이 24.7%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11-12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영국의 한 연구에서 처음 알코올을 접한 나이가 남자는 8.6세, 여자는 9.2세였고(Black, 1994; HEA, 1997), 처음 시작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부산 지역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

〈표 7〉 음주경험에 따른 장래 음주 의도

구 분	음주경험		x <sup>2</sup>	p
	무 실수(%)	유 실수(%)		
안 마시겠다	233(86.6)	222(79.3)	5.197	0.023
마시겠다	36(13.4)	58(20.7)		
계	269(100.0)	280(100.0)		

\* 무응답 제외

였다(간경애와 김영혜, 2000).

처음 음주한 장소는 가족 모임이나 행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명절이나 제사 때로서 주로 술이 사용되는 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술 문화에서 가정 행사나 모임에서 술을 권하는 습관으로 술을 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간경애와 김영혜, 2000).

음주시 기분은 좋았다는 반응보다 힘들었다가 가장 많았고, 맛없고 불안했다도 일부 있어서 학생들에게 음주 경험은 그다지 유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분이 좋았다도 16.8%였던 점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처음 마신 술은 맥주가 가장 많아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접한 술은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순한 술이나, 마시기에 순한 막걸리, 과일주 등이었으나, 소주나 양주 같은 알코올 함량이 높은 술을 처음 접한 학생들도 30%정도 있었다.

음주동기는 호기심에서가 가장 많았고, 어른들의 권유, 술인지 모르고 실수로 마신 경우 등이었다. 호기심에서 음주가 시작되는 것은 지양시켜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며, 어른들의 권유로 음주가 시작된다는 점은 호기심을 없애주는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히 권하는 정도보다는 음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 중심의 권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음주시 동반자는 50%이상의 학생이 부모로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혼자서 마신 학생도 20%라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현상으로 생각되며,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어울려 마신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경험의 차이는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아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였으며(이기찬, 1997; 간경애와 김영혜, 2000), 청소년들의 술 소비량의 경우 남학생들은 꾸준한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문화체육부, 1996), 초등학교의 경우 아직도 남학생이 현저하게 높았다.

학년, 종교, 교우관계, 학교 생활, 성적 등에 따른 음주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교우관계에서 친구가 적다는 학생의 음주 경험률이 친구가 많거나 보통이라는 학생보다 약 20%정도가 높

았고, 또한 학교생활이 힘들다는 학생의 음주 경험이 재미있다는 학생들보다 10%이상이 높았던 결과는 이들 집단에 대하여 좀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환경에 따른 음주 경험은 부모가 음주자인 학생의 음주 경험이 음주자가 아닌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처음 음주를 부모와 함께 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부모들의 음주 시에 자연스럽게 술에 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거주지역에 따른 음주경험은 상가 공장 및 기타지역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단독 주택 지역, 아파트 지역의 순위로서 거주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의 존재여부에 따른 음주 경험은 양부모가 모두 없거나 편부모인 학생의 경험률이 양부모가 있는 학생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양부모 모두 없는 학생의 경험률이 양부모 있는 학생보다 25% 정도가 높았던 점은 고려해 볼 문제이다.

부모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는 관심이 적다는 학생의 음주 경험이 보통이나 많다는 학생보다 다소 높았으나 부모의 관심 정도에 따라 음주 경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가정생활의 안정감에 따라서도 불안하다는 학생들의 음주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장래의 계획은 음주 경험 여부를 막론하고 80%의 학생들이 안 마시겠다고 하여, 음주의 경험이 기분이 좋았다는 반응보다 힘들고, 불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경험자가 경험자에 비해 앞으로 마시겠다고 하는 학생이 유의하게 적었던 것은 음주 경험이 음주 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흥미있는 결과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반수가 이미 음주 경험이 있으므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알코올 교육을 소개하여 알코올을 남용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어, 술로 인해 손상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해를 일으킬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음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VI. 결 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시내 5개교의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630명을 대상으로 음주실태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상 학생들의 음주 경험률은 경험자가 55.4%였다.
2. 음주 경험 학생들의 첫 음주관련 상황은 처음 음주를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이 24.7%로 가장 많았으며, 98.1%의 학생이 처음 음주한 장소는 가족 모임이나 행사, 명절이나 제사 때라고 하였다. 음주시 기분은 힘들었다가, 음주 시작 동기는 호기심, 처음 마신 술 종류는 맥주, 음주시 동반자는 부모가 제일 많았다.
3.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4. 학생들의 환경에 따른 음주 경험은 부모가 음주자인 부모를 가진 학생이 비음주자 부모를 가진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5. 음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경험이 없는 학생 중에서는 마시겠다고 13.4%로서 경험자의 20.7%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 참 고 문 헌

간경애, 김경혜 (2000). 초등학교 학생의 음주 및 음주경험 실태 조사. 아동간호학회지, 6(1) : 51-59

김경빈 (1991). 청소년약물 오·남용예방. 보건사회부 약정국 마약관리과.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 (1994). 양호교사가 실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교육 효과연구. 연세교육과학, 103-108.

문정순, 양수, 박호란, 이은숙 (2000).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문제음주예방 교육의 방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1), 68-79.

문화체육부 (1993).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대책연구.

문화체육부 (1996).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문화체육부.

윤혜미 (1998). 청소년 음주실태와 예방프로그램,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알코올문제예방세미나, 대한주류공업협회/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이기찬, 김영준, 신영규 (1997).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에 관한 연구. 소아과, 40(3), 307-317.

최은진 (1999). 청소년 금주 프로그램의 실제. 제 24회 보건학 종합학술대회, 대한보건협회, 9-17.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1998). 청소년 및 대학생 위한 알코올 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학회 (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연구. 문화체육부.

Black, J. (1994). Alcohol and Young Adolescents. Lancaster University, unpublished study. Education & Behavior, 24(2), 135-136.

Haydock, Avril RMN (1998). Alcohol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Nursing Standards, 13(6), 43-46.

Health Education Authority (1997). Health Update : alcohol. London, HEA.

Practice Notes : STARS(Start Taking Alcohol Risks Seriously) for families (1997).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2), 135-136.

James, W. H., Moore, D. D., & Gregersen, M. M. (1996). Early Prevention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adolescents. J. of Drug Education, 26(2), 131-142.

McMiller, P., & Plant, P. (1996). Drinking, smoking and illicit drug use among 15 and 16year olds in the United Kingdom. British Medical Journal 313, 394-397.

Wallerstein, N., & Bernstein, E. (1988). Empowerment education: Freire's ideas adapted to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15, 370-394.

ABSTRACT

---

## A Survey on Status of Drink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

**Moon, Jung Soon · Yang, Soo · You, Yang Sook**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Nov. 15 to Dec. 20, 1999, covering 630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in 5 elementary schools, in Seoul,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problematic drinking prevention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Among the students under inquiry, 55.4% answered they had the experience of drinking.
2. Forth grade was the most frequent year students start drinking(24.7%). Most of them had their first drinking experience at the family party, a gala day or religious service and accompanied with parents. Beer was the most frequently drank and curiosity was the most common reason to start drinking.
3. As for the drinking experience in ter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the 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rate of drinking experience than that of female.
4. As for the drinking experience in term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 students whose parents were drinker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rate of drinking experience than that of non-drinkers.
5. The intention of the students in future drinking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non-drinkers with 13.4% than that of drinking experience students with 20.7%.